

영원무궁토록 사랑하리 우리의 국기

- 전쟁로병인 어머니의 수기를 펼쳐 보며 -

창창한 9월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발이 힘차게 나뭏긴다.

사나운 폭파도 불구름도 곳곳이 헤치며 장장 75년세월 자랑스럽게 휘날리는 우리의 공화국기.

이 땅 어디서나 엄숙히 계양되어 온 나라가 성스런 국기의 람홍색빛으로 물드는 내 조국의 9월이다.

이 국기를 우리라며 우리 인민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어제날 총을 잡고 조국수호의 전호에 섰던 나도 군인시절처럼 국기에 삼가 경례를 드린다.

살아계셨다면 아마 나의 어머니도 국기와 맺어진 한생의 인연을 감회깊이 추억하며 눈물을 길잡지 못했을것이다.

우리 집 창가에 펼쳐있는 공화국기발에서 그 모습을 떠올려보며 나는 어머니의 수기를 펼쳐든다.

삼천만이 떠올렸던 인민의 기발

나는 때때로 사람들로부러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40여년간 군사복무를 한다는것이 결코 형식없는 일인데 한생을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무슨 남다른 사연이 있는것이 아닌가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어머니가 쓴 수기의 구절을 그대로 이야기 해주곤 한다.

《공화국기발은 나에게 있어 사랑이라고 말할수 있다. 심장을 다해 따르고 싶고 반들어올리고 싶은 기발이다.》

아마도 어머니의 이 가식없는 진정이나로 하여금 군복을 입게 하고 한생토록 군인으로 살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군인에게 있어 사랑중의 사랑이 국기이며 군인이 있는 곳에 언제나 국기가 휘날리기때문이다.

국기에 대한 애착과 열애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새 조국의 탄생을 만방에 알리며 창공높이 계양되던 75년전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인민의 다함없는 사랑과 진정으로 떠날줄러 휘날리는 람홍색국기.

세상을 둘러보면 그 어느 나라나 할것없이 국기가 최대의 례의와 존중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이 행성의 모든 나라 국기들이 다 인민의 뜻을 체현하고 인민의 다함없는 경의와 사랑을 받고있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인민이 국기에 드리는 경의와 경례는 다른 나라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격식적이고 례에 박힌 그런 례의가 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진정을 바쳐 사랑하고 따르며 정히 반들어올리려는 지극한 마음이다.

올해에도 새해를 맞으며 김일성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된 국기계양식에서 국기를 계양한 사람들은 공화국의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학생소년들이었다.

진정 내 나라의 국기야말로 인민의 뜻으로 승취고 인민의 사랑과 정이 스며배인 인민의 기발이다.

이것을 나는 조선특유의 국기서정이라고 말하고싶다.

인민의 기발!

이 소중한 부름과 함께 나의 눈앞에는 이 기발을 압축결은 피뢰지역에 처음으로 띄우던 어머니의 모습이 수기의 구절구절에 실려 떠오른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지 이틀이 지난 1948년 9월 11일 새벽 서울 정동에 있는 리화녀자중학교의 계양대로로 람홍색공화국기가 기운차게 솟아올랐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리화녀자중학교가 있는 그곳으로 말하면 앞에는 성조기를 꽂은 미국대사관이 틀고앉아있었고 근처에는 피뢰대방원이며 피뢰지방방원, 피뢰정찰청 같은 파초꼭잡기구들이 도사리고있는 실범하기 지극한 곳이었었던것이다.

그러한 반동의 이성 한복판에서 공화국기발이 거연히 솟아올랐으니 그 얼마나 장쾌한 광경이었으랴.

인민은 환호했고 인수들은 혼비백산하였다. 온 서울땀이 흥분과 격정으로 끓어올랐다.

그날 리화녀자중학교에 공화국기를 띄운 주인공이 바로 당시 17살의 애젊은 처녀였던 나의 어머니 박채애이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어 남녘의 하늘에 공화국기를 띄우게 되었는가.

해방전 태어난지 한달만에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는 의지가치할때 없는 홀어머니를 따라 남의 집 행랑살이를 해매며 아버지없고 나라없는 서러움을 울어야만 하였다.

나의 외할머니는 일점혈육인 딸자식 한데만은 고생과 수모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손끝이 모지라지게 샅빨래와 삶바느질을 하고 식모살이를 하였다.

그는 외할머니는 눈물겨운 모습을 볼 때마다 어머니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곤 하였다고 한다.

《불쌍한 어머니의 명든 상처를 가져 줄 그런 세상은 없을까? 어머니와 나같은

국기와 나! 이 한마디로 응축할수 있는 어머니의 수기를 나는 결코 국기와 더불어 엮어저은 한 녀인의 일대기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국기라는 이 부름에는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며 국기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켜싸운 이 땅의 수많은 유명무명의 삶과 인생이 담겨져있는것이 아니던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 공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어머니의 수기를 한장한장 펼쳐보며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75년사가 비껴여있는 성스러운 우리 국기에 대한 생각을 미숙하게나마 이 글에 담고저 한다.

은 천더기들도 따듯이 품어주는 그런 나라는 참말로 이 하늘아래 없을까?...)

하나 식민지조선의 모진 현실속에서 어머니의 친절한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수 있었으랴.

드디어 해방의 날이 왔다.

삼천리 방방곡곡이 재생의 감격으로 뒤덮이게되었다.

어머니는 가슴부풀도록 자기의 앞날을 꾸꾸며 해방된 거리를 활보하였다.

하지만 회월에 달아올랐던 남녘사람들의 가슴은 날이 감에 따라 서늘하게 식어들었다.

모든것이 이전 그대로였다.

일제총독부는 미군정청으로 간편만 바뀌어졌고 새우등같이 굽어든 백성들의 등허리는 여전히 빈궁과 무런리에 무겁게 짓눌려있었다.

회망은 산산이 부서져나갔다. 자주독립국가에 대한 속망도, 새 생활에 대한 열망도 미국의 횡포무도한 군화발에 채워 물거품처럼 꺼져버리고말았으니 꿈을 짓밟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때 북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천대와 억압속에서 신음하던 어머니를 비롯한 수난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울려주었다.

도지개혁병, 로동병, 남녀평등권병... 실로 함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이 시책들은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이 땅 만백성들의 세기적인 갈망을 담고있었다.

어느날 새대문형무소부근의 현저동 빈민촌에 자리잡고있던 어머니의 집에서 마을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는데 이웃집 청년이 품에서 사진을 정중히 꺼내들며 이분이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라고 말하는것이 아닌가.

방안에 있던 사람들모두는 눈길일제히 사진에로 모아졌다. 그 사진에는 평양공설운동장(당시)에서 인민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례하시는 김일성장군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져있었다.

남처호르는 태양의 강렬한 빛발과도 같은 안광, 그 안광에서 뿜어나오는 담대한 기상, 준수하고 기백넘친 모습에 비껴호르는 자애로운 미소... 장군님은 그 영상을 우러르고 또 우러리는 어머니의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억누를수 없는 힘으로 차올랐다.

태어나서부터 착취사회가 들쭉온 어둠과 불평등을 진저리나게 겪어온 어머니에게 있어서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세우시는 인민의 나라라는 회망의 등대가 아닐수 없었다.

피눈물나는 지난날의 생활체험, 정의에 굽고 새 생활을 갈망하는 열렬의 심정이 어머니에게 주저없이 김일성장군님을 따라야 한다고 꿰치고있었다.

그러던 1948년 9월 10일 어머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다는 격동적인 소식과 함께 누군가가 가져온 공화국기도안을 보게 되었다.

말로는 이루어 다 표현할것 없는 흥분과 감격에 눈앞이 뿌렇게 흐려졌다.

어머니와 같은 평범한 백성들을 위한 나라, 참다운 새 조선의 기발이었다.

해방이 되어 일장기는 내러졌지만 그 자리에 올라간것은 성조기였으니 미국놈들이 주인공행세를 하고 친미사대매국노들이 판을 치는 오욕의 땅에서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던 어머니를 비롯한 인민들에게 있어서 공화국기발은 단손히 기발이기 전에 삶의 표제였다.

이제는 우리 조선사람들에게 내 나라라고 부를 조국이 있다!

이것이 당시 어머니가 세상에 대고 웨치고싶은 말이였다.

어머니는 먹구름 서린 식민지의 하늘가에 제손으로 공화국기발을 띄우고 부모형제들에게 인민의 새 나라가 세워졌음을 소리높이 알리고싶었다.

그날 저녁에 있는 일을 어머니는 수기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기발을 만들자면 흰 천이 있어야 하겠는데 하고 생각했다. 집에 들어선 나의 눈길은 장능우에 개여있는 이불에 가닿았다. 어머니와 내가 덮고 자는

이불이었다. 내가 어머니에게 심정을 비치자 어머니는 이불을 내리우주며 내 걸음을 지지해주었다. ...》

자식을 아는데 제 어머니만한것이 없다는 말도 있듯이 늘상 딸자식의 마음을 손근모듯 헤아렸다는 외할머니였다.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진실같은 이야기들을 어머니에게 처음 들려준이도 다름아닌 외할머니였다고 한다.

어머니는 추추치는 꼬마운 정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기발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얀 이불안을 뜯어내어 길이 1m가 되게 자르고 수채화구로 그우에 공화국기를 정성껏 그렸다. 그리고는 밤새껏 다리미로 반듯하게 말리었다.

다음날 이른새벽 기발을 가슴에 품고 학교로 달려간 어머니는 마침내 계양대에 공화국기를 띄워올렸다.

오각별 찬란한 공화국기발이 초가를 바람을 안고 나뭏기였다. 저만하게 퍼덕이던 미국대사관의 성조기도 금시 빛을 잃었다.

칼잡한 압축을 불사르며 세날의 광명을 안겨주는 태양마냥 공화국기는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며 세계에 펼쳐지고있었다.

어머니는 뚫어오르는 환희와 격정속에 공화국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고 한다.

(여섯년, 어서 잠에서 깨어나 저 기발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삶의 표제가 있습니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인민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날 비단 리화녀자중학교뿐 아니라 피뢰지역 곳곳에서 원수들의 방패와 폭압을 박차고 공화국기가 힘차게 휘날리었다.

압축의 남녘땅에 처음으로 공화국기를 띄운 나의 어머니.

어머니의 그 모습을 담은 그림을 나는

목숨바쳐 지켜온 승리의 기발

아무리 소중한 성스러운 국기라 할지라도 지켜지지 못한다면 한낱 비극의 상징물로밖에 되지 못하며 짓밟히는 국기와 함께 인민은 망국노의 피눈물을 흘려야 하고 벌레처럼 짓밟혀야 한다.

세상을 둘러보면 자기들이 떠올린 국기를 지키지 못하여 땅바닥에 떨어져 통락당하는 국기와 함께 수난을 당하는 인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허나 우리의 공화국기발은 이 나라 인민이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굳건히 지켜온것으로 하여 영광스러운 공화국의 역사를 길이 전하며 람홍색 그 빛으로 누리를 뒤덮고있다.

그 공화국기발을 지켜 나의 어머니도 전화의 나날 피를 바쳤고 나 역시 40여년간을 군인으로 살아왔다.

그런 연고로 하여 나는 군복을 입었을 때나 군복을 벗은 오늘날에나 자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 총탄에 뿔리고 파편에 찢겨진, 화염과 포연에 거름겨 그늘린 공화국기발앞에 오레도 소중히 서있곤 한다.

그러면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적진을 향해 돌진하던 전화의 기수들의 모습이 어머니의 수기 구절구절에 비껴 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락동강전선의 어느날 고지를 점령하는 건투때였다고 한다.

전호원으로서 전우들의 뒤를 따라 고지로 치달아오르던 나의 어머니는 적란에 맞은 기수가 공화국기를 그려 쾨해 쓰러지지도 않으려고 모지름을 쓰는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그러로 달려가 기수에게서 공화국기를 넘겨받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한 전사가 달려와 밀어내고는 그 기발을 넘겨받아 고지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허나 그 전사도 불과 몇걸음 못가서 쓰러지고말았다.

전투에서 공화국기를 들고 돌격하는 기수들은 언제나 적들의 집중사격요적이 되었던것이다.

또 다른 나 어린 전사가 기발을 넘겨 받아 기수로 나섰건만 우박처럼 날아드는 적탄에 그 전사도 쓰러졌다.

그렇게 기수들은 연이어 쓰러졌어도 공화국기발은 단 한순간도 내리위치지 않았다. 달려가던 기수가 쓰러지면 다음 기수가, 그 기수가 쓰러지면 그 다음 기수가 이어받으며 인민군용사들은 기어오르기에 우리의 국기를 휘날리고야말았다.

끝낼내 고지우에 기발을 꽂은 마지막전사는 여섯번째 기수, 허나 기세차게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바라보며 승리의 만세를 터지던 어머니와 전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 마지막 기수가 바위처럼 굳어져있는것이 아닌가. 기발대를 수서지게 틀어쾨해 눈도 못감고 숨진 그의 얼굴에는 피젇은 미소가 어렸다였다. ...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에게 그 병사의 모습, 기수의 최후의 모습을 영현히 잊을수 없다고 늘 말하곤 하였다.

얼마나 많은 용사들이 공화국을 지켜, 사랑하는 국기를 지켜 자기의 목숨

군사복무의 나날 늘 가슴에 품고있었다. 그 그림에서 나는 어머니의 모습만을 보지 않았다.

공화국을 동경하고 따르던 남녘의 민심을 보았으며 김일성장군님께서 세우신 공화국을 삶의 기둥으로, 공화국기발을 삶의 표대로 안고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불같은 지향을 보았다.

인민의 녃과 숨결이 어린 공화국기. 세상을 둘러보면 운명도 미래도 지켜주지 못하는 제 나라를 원망하며 국기에 이사짐을 짜든채 정처없이 해매는 피난민들도 있고 태를 묻고 자란 땅을 인간생지옥으로 만든자들을 철구하며 이른바 《국기》라고 하는 기발을 몸에 두르고 분신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75년전 나의 어머니를 비롯한 이 땅의 인민들이 운명의 전부로 선택하고 삶의 표대를 불러도 떠올린 공화국기는 오늘날까지 인민의 뜨거운 사랑과 경의를 받으며 창공높이 휘날리고있다.

누구나 국기가 새겨진 옷을 즐겨 입고 일터마다에 국기가 놓여있으며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도 국기를 즐겨 그리고 병사들은 국기에 얼굴을 맞비벼도 심장을 울려주고있다.

드넓은 농장밭에도 황금이삭들로 새긴 국기가 장엄하게 펼쳐지고있으며 사람들은 노래를 불려도 《휘날리려 공화국기 우리 삼색기》와 《우리의 국기》를 즐겨 부른다.

그 누구도 지어낼수 없고 흥배낼수 없는 국기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사랑의 고백이며 찬가이다.

그렇다. 공화국기야말로 우리 인민이 심장으로 떠올리고 휘날리는 인민의 기발, 삶의 표제이다.

파 청춘을 아낌없이 바쳤던가.

마지막숨을 모아 승리한 고지에 기발을 꽂아달라고 부라한 전수도 있었고 적란에 기발대가 끊어지자 총창에 공화국기를 비꼬러메고 돌격하다가 전사한 전수도 있었다.

그들은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공화국기발을 명줄처럼 틀어쥐고 놓지 않았으며 국기를 피로 물들일지언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6명 기수들의 이름을 한명명해 뜨겁게 불려보았다.

그들중에는 해방후 공장의 주인으로 쇠물을 뿔던 용해공도 있었고 배운의 전당에서 공부하던 대학생도 있었으며 대대로 소작농의 명에를 벗지 못하고 살다가 수전선의 옥담을 분어받은 호남벌의 농민도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국기는 장군님 주신 기름진 땅이었고 선거표를 받아들고 달려가던 솔문 솟은 선거장이였으며 글소리 방향한 교정이고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될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였다.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49년 4월 그렇게도 안기고싶던 공화국의 품에 안긴 어머니는 정말 1년간 회한한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보았다.

공화국에서는 어머니가 못다한 공부를 마저 하도록 하고 인민학교 교원으로 배치하여주었으며 아직 교원한도 없는 18살의 나 어린 천녀에게 말마다 생활하기에 충분한 생활비와 함께 백미와 생활필수품들을 넉넉히 공급해주었다.

누리는 행복이 클수록 어머니는 값있게 하려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서울의 외할머니생각에 발원점을 잘수 없었던다고 한다.

하기에 어머니는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자 인민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삶의 보금자리를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용약 전선으로 달려나갔던것이다.

전략적인 일직후퇴시기 어머니의 운명은 공화국기발을 통해 조국과 하나로 더욱 굳게 이어졌다.

후퇴의 길은 길고하였다.

매없이 달려드는 적들과 격전을 벌리며 부대는 문정교개를 넘고 태백산줄기를 타며 북을 향해 걸고 또 걸었다.

힘겨운 행군, 그에 못지 않게 건디기 힘든 굶주림과 추위...

어느날 전투에서 증상당한 한 분대장이 행군도중에 위급해졌다. 어머니가 급히 달려가보니 담가에 실려있는 그 분대장은 최후의 숨을 몰아취고있었다.

어머니를 알아본 분대장은 가까스로 한손을 들어 자기 가슴에 얹더니 얼마 후 숨을 거두고말았다.

어머니는 슬픔을 누를길 없어 오열을 터뜨렸다. 그러다가 한참만에야 정신을 차리고 분대장의 군복단추를 풀어보았다. 뜻밖에도 앞가슴에서 피에 젇은 공화국기가 나지는것이 아닌가.

어머니는 온넛을 흔드는 충격을 느꼈다.

분대장의 마지막말이 그가 품고있던 공화국기에 다 담겨져있었다.

힘겨운 때일수록 공화국기를 안고살라지는, 자기 목까지 합쳐 우리의 국기를 끝까지 휘날리려라는 전우의 절절한 당부가 심장에 메아리쳐왔다.

어머니는 전우의 붉은 피가 스민 기발을 쓸어보며 볼보다 뜨거운것을 삼켰다. 전사들모두가 그 기발을 대오의 앞에 휘날리며 용기백배하여 행군을 다우쳤다.

마침내 그해 초겨울 대오는 끝내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어머니의 수기를 읽을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진정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우리 국기를 지켜내고 휘날린 전화의 용사들은 모두가 공화국기의 기수들이었다.

어저 전선에 싸운 용사들뿐이라. 그 기발을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조국수호의 길에서 애국의 고귀한 피와 땀을 바쳐간 우리 인민모두가 불굴의 기수들이라고 해야 마땅할것이다.

세세년년 나뭏길 영광의 기발

인민이 사랑하고 선렬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국기도 태를 이어 빛내어주는 수령이 없다면 력사의 풍운에 찢기고 세월의 광풍에 락엽처럼 떠어쳐 흩날리게 된다.

바라다 보면 동유럽사회주의가 물먹은 담배처럼 무너지던 지난 세기 90년대의 나날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도 준엄한 시험의 시기가 아닐수 없었다.

적대세력들은 기가 등등하여 사면팔방에서 달려들었으며 우리의 공화국기도 얼마 못가서 내리위질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의 위대한 상징 공화국기를 지켜 사회주의수호전에 한몸을 내대신분은 위대한 장군님들이었다.

우리의 총구가 코앞에 도사리고있는 351고지와 1211고지, 판문점에서의 전선시찰의 길과 집채같은 파도바 배전에 사정없이 들쭉쭉져 사진마저 남기지 못했던 초도의 풍랑길 그리고 어찌그 차를 미시며 한치한치 오르셨던 오성산의 칼벼랑길이며 지동치터 불어치던 강개의 눈보라길...

그 사생결단의 길에서 장군님께서 마음속에 언제나 소중히 품고계신것은 우리의 국기였으니 그이께서는 심장의 더운 피로 국기에 숨결을 부어주셨고 도전과 압살의 광풍을 맞받아 야전복자락을 날리시며 기록에 꺼지지 않는 활력의 피덕임을 주시였다.

동유럽나라들에서 붉은기들이 련이어 내리쬐며 넘겨쳐 땅바닥에 나뎅구는 소식을 들으며 억한 심증을 누르지 못하던 어머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의 총대로 지켜주시고 사회주의 승리의 기치로 더 높이 휘날려주시는 공화국기야말로 장군님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기발이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곤 하였다.

그러면서 나에게 전쟁로병으로서 이야기하기엔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총대로 더 잘 받아야 한다고 거듭 이르곤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 조국의 하늘높이 휘날려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신 우리의 공화국기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더욱욱 눈부신 빛발을 뿌리고있다.

지금도 경축의 광장에서 우리의 국기에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비오며 눈시울을 적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창공높이 오르는 람홍색국기를 경건히 바라보시며, 장중히 울리는 국가의 구절을 나직이 따라부르시며 숭엄한 격정에 잠기곤 하시는 우리의 원수님.

그 영상을 우러리며 우리는 깨닫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위엄을 이어 이 조선을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적의 신념과 의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한생을 강그리 다 바쳐가시려는 그의 불같은 애국의 열망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된다.

오늘날 람홍색공화국기아래 펼쳐지는 기적과 신화, 모든 번영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신념과 의지가 안아온 황홀하고 눈부신 산아들이며 신비의 별천지들이다.

지금도 공화국기발이 자신에게 조국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수령을 따르는 변함없을 지조를 안겨주었다고, 국기와 함께 살아온 자신의 인생은 행복했다고 외우던 어머니의 그 말이 이 가슴을 새차게 두드린다.

어머니의 마음까지 안고 나는 국기를 무너린다.

국기와 나!

어머니가 외우던 이 부름에 한 녀인의 운명만이 아닌 나의 운명 그리고 후손들의 운명, 우리 인민모두의 삶이 펼쳐야 할수 없이 이어져있다.

진정 국기와 나라는 이 부름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

하기에 누구나 항상 국기를 바라보며 참다운 삶의 품인 조국을 위해 멋땀이 살고있는가를 심장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혁명선열들이 지켜오고 빛내어온 국기를 이제는 우리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태를 이어 지키고 빛내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 세대들과 후대들의 삶의 본령이고 달리는 철수 없는 운명의 선택이다.

정녕 어느때 바라봐도 내가 조선사람임이 그리고 긍지스러운 국기기에, 어디서든 펼쳐입소리를 들어도 세계의 제일 앞장에 우리가 서야 함을 절철히 일깨워주는 우리의 국기기에 나는 어머니와 나 자신의 심정을 담아 그 고귀한 나라 인민들과 마음을 합쳐 이렇게 말하고싶다.

살아서 우리의 국기를 빛내고 죽어서도 이 기록을 덮고 간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과 영광은 없나고.

나는 위대한 국가의 공민된 무한한 자부심으로 가슴부풀게 하는 전진민적인 승가의 한구절을 읊기는것으로 이 글을 맺으려 한다.

사랑하리라 빛나는 우리의 국기를 나뭏겨오다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유선우

(박차대전쟁로병의 만아들)

그 수많은 기수들의 더운 피로 물들어 우리 국기의 붉은빛은 그러도 강렬한것이며 그 어떤 원수도 퇴색시킬수도 변색시킬수도 없었던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국기의 붉은 색채를 무심히 대할수 없다.

전화의 용사들이 흩린 피 갈아서, 어머니가 잊지 못하는 6명의 기수와 분대장의 가슴에서 뿔던 그 선혈 갈아서.

공화국기발. 피보다 진한것이 우리 국기의 람홍색빛이며 목숨처럼, 아니 목숨보다 더 귀중한것이 내 조국의 국기이다.

하기에 나는 국기를 지키는것은 군인들만의 사명만이 아닌 국기아래 사는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성스러운 임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기를 지키지 못하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다.

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곤 한다. 국기를 사랑하면 국기를 지켜 괴를 바쳐야 한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하고 귀중한것이 바로 조국이다.